



○

2025 길 위의 인문학

# 2025 전주산책자

2025.7.2.(수) ~ 10.29.(수)

매주 수요일 오후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진북생활문화센터 2층 어울림

“도시산책자의 시선으로 전주를 거닐다”

○

## 기관소개

## 진북생활문화센터

지역 속으로, 시민 속으로, 나누고 함께하는 생활문화

진북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한 문턱 없는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참여하는 생활문화 활동의 장(場)입니다.

기초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역량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기획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북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시민문화 활동 플랫폼으로써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생활문화의 무한한 생명력 확산을 꿈꿉니다.

## 사업소개

## 2025년 길위의 인문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문학 사업으로,  
역사 문화 등 지역 인문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매력을 발굴·확산하고,  
인문 가치 확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합니다.  
인문에 대한 관심 증진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강연과 체험,  
지역 인문 지원 탐방 등을 결합한 일반 인문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그램 소개

## 2025 전주산책자

2025 전주산책자는 도시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탐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의 풍경과 소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기억과 이야기를 따라 걸으며,

전주의 공간과 사람,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참여자는 단순한 거주민을 넘어, 도시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언어로 풀어내는 '도시산책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주의 전통건축과 골목, 정자, 소리문화, 시인들의 흔적 등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며,

도시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그 연결점을 탐색합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인문학의 도시 전주'를 다시 읽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개요

### **프로그램명**

- 2025 전주산책자

### **교육장소**

- 진북생활문화센터

### **교육일시**

- 2025.7.2.~10.29. 매주 수요일 1시30분~3시30분

### **교육대상**

- 일상 속에서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전주 시민 누구나

### **강사진**

- 허정주, 김성식, 최명표

회차	주제	내용	강사명
1	7월 2일	<전주산책자> OT, 전주의 전통 건축	허정주
2	7월 9일	전주의 근현대한옥	허정주
3	7월 16일	일제와 싸우다 명멸한 시인	최명표
4	7월 23일	일제와 싸우다 명멸한 작가	최명표
5	7월 30일	일제와 싸우다 명멸한 작가	최명표
6	8월 6일	사습, 대사습, 전주 소리꾼	김성식
7	8월 13일	전주의 공공한옥	허정주
8	8월 20일	풍남문, 성황사, 김부대왕	김성식

회차	주제	내용	강사명
9	8월 27일 전주의 Soundscape - 자연소리	전주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3부작. 자연의 소리로 듣는 전주의 현재와 과거	허정주
10	9월 3일 농경 배후도시로서의 전주	호남평야 배후도시 전주의 쌀문화	김성식
11	9월 10일 조선시대 지도로 보는 전주의 명소	조선시대 고지도 속 전주 주요 장소를 살펴보고 현재 위치와 연결	김성식
12	9월 24일 전주부성 산책(탐방)	전주산책자가 되어 조선시대 전주부성과 현재 원도심 탐방	김성식
13	10월 1일 전주 문학 산책(탐방)	문학산책자가 되어 전주 대표 문학 유적지를 거닐며 문학적 사유	최명표
14	10월 15일 전주의 Soundscape - 인공소리	일상 속 인공 소리로 듣는 전주의 삶과 변화	허정주
15	10월 22일 전주의 Soundscape - 농악/풍물굿	전주 전통 소리문화 농악/풍물굿 분석과 재발견	허정주
16	10월 29일 전주팔경 '남고모종' 산책(탐방)	도시산책자의 시선으로 전주의 전통문화 공간을 탐방하며 전주의 과거와 현재 종합적 통찰	허정주

## 홍보물 (포스터, 현수막, 배너)



## 회차별 수업내용

## 1회차 - 허정주 강사

2025. 7. 2. 수요일 13:30 ~ 15:30



### 주제

<전주산책자>OT, 전주의 전통건축

### 내용

발터 벤야민의 플라너르(도시산책자)를 중심으로  
전주의 전통건축과 소리로 도시를 읽는 인문학 산책 소개  
전주의 대표적인 한옥마을의 건축물에 대한 지식을 개론적으로 설명

## 2회차 - 허정주 강사

2025. 7. 9. 수요일 13:30 ~ 15:30



### 주제

전주의 근현대한옥

### 내용

전주 시가지 전통·근현대 한옥과 골목길의 공간적 가치,  
한옥 짓기 의례에 담긴 전통 주거문화의 철학관

### 3회차 - 최명표 강사

2025. 7. 16. 수요일 13:30 ~ 15:30



#### 주제

일제와 싸우다 명멸한 시인

#### 내용

지역 신문과 잡지에 남겨진 기록으로 보는 전주 항일 시인  
전북 근대문학의 발자취를 따라서

### 4회차 - 최명표 강사

2025. 7. 23. 수요일 13:30 ~ 15:30



#### 주제

일제와 싸우다 명멸한 작가

#### 내용

이리의 근대문예운동과 군산의 근대문예운동  
유연, 이익상 등 지역 신문과 잡지에 남겨진 기록으로 보는  
전북에서 활동한 시인들

## 5회차 - 최명표 강사

2025. 7. 30. 수요일 13:30~15:30



### 주제

일제와 싸우다 명멸한 시인

### 내용

김창술, 김해강 등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며 활동했던 전북의 시인들

## 6회차 - 김성식 강사

2025. 8. 6. 수요일 13:30~15:30



### 주제

사습, 대사습, 전주 소리꾼

### 내용

소리꾼 정창업과 대사습 이야기로 살펴보는  
전주의 다양한 소리꾼과 소리문화

### 7회차 - 허정주 강사

2025. 8. 13. 수요일 13:30~15:30



#### 주제

전주의 공공한옥

#### 내용

전주 의례·의식 공공 한옥(사원·사우·사당·서원·향교·성·정자·사찰·루·객사·비각 등)과 현대 한옥의 건축 문화사적 의미  
전주가 전통적인 도시 공간으로 탄생되는 전주민의 비보·풍수적 요소들

### 8회차 - 김성식 강사

2025. 8. 20. 수요일 13:30~15:30



#### 주제

풍남문, 성황사, 김부대왕

#### 내용

풍남제의 유래와 전주 지역에 뿌리내린 불교 및 무속의례

9회차 - 허정주 강사

2025. 8. 27. 수요일 13:30~15:30



주제

전주의 Soundscape - 자연소리

내용

전주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3부작.  
자연의 소리로 듣는 전주의 현재와 과거

10회차 - 김성식 강사

2025. 9. 3. 수요일 13:30~15:30



주제

농경 배후도시로서의 전주

내용

호남평야 배후도시 전주의 쌀문화

### 11회차 - 김성식 강사

2025. 9. 10. 수요일 13:30~15:30



#### 주제

조선시대 지도로 보는 전주의 명소

#### 내용

조선시대 고지도 속 전주 주요 장소를 살펴보고 현재 위치와 연결

### 12회차 - 김성식 강사

2025. 9. 24. 수요일 13:30~16:30



#### 주제

전주부성 산책(탐방)

#### 내용

전주산책자가 되어 조선시대 전주부성과 현재 원도심 탐방  
한벽당-쌍샘광장-오목대당산나무-경기전하마비-전라감영-전동성당

### 13회차 - 최명표 강사

2025. 10. 1. 수요일 13:30~16:30



#### 주제

전주 문학 산책(읍방)

#### 내용

문학산책자가 되어 전주 대표 문학 유적지를 거닐며 문학적 사유  
향교-양사재-학인당-고하문학관-초록바위-다가공원

### 14회차 - 허정주 강사

2025. 10. 15. 수요일 13:30~15:30



#### 주제

전주의 Soundscape - 인공소리

#### 내용

일상 속 인공 소리로 듣는 전주의 삶과 변화  
전주에서 들을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의 소리  
(민요, 판소리, 시조, 농악, 가사, 범파 등)

## 15회차 - 허정주 강사

2025. 10. 22. 수요일 13:30~15:30



### 주제

전주의 Soundscape - 농악/풍물굿

### 내용

전통 소리문화 중에서 농악/풍물굿을 구체적 사례로 한  
기조음, 신호음, 표식음 분석  
유일무이한 한국의 '농악/풍물굿'을 재발견하는 시간

## 16회차 - 허정주 강사

2025. 10. 29. 수요일 13:30~16:30



### 주제

전주팔경 '남고모종' 산책(탐방)

### 내용

도시산책자의 시선으로 전주의 전통문화 공간을 탐방하며  
전주의 과거와 현재 종합적 통찰  
총경사-불정사-남고산성-남고사-만경대

김성식 선생님과  
**첫번째 탐방**

2025. 9. 24. 수요일 13:30~16:30

전주산책자가 되어 조선시대 전주부성과 현재 원도심 탐방  
한벽당-쌍샘광장-오목대당산나무-경기전하마비-전라감영-전동성당





## 황은옥

한벽당을 처음으로 올라가 봤다.

한벽당은 '승암산 기슭의 절벽을 깎아 세운 누각이다. 조선의 개국 공신인 최담 선생이 별장으로 세운 건물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최담 선생의 호를 따서 '월당루'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한벽당'이라고 명칭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한벽청연은 이곳이 옥처럼 맑은 물이 흘러 바윗돌에 부딪쳐 흩어지는 광경이 마치 벽옥한류(碧玉寒流) 같다 하여 붙였다고 한다. 지금은 물이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한벽당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아름답고 편안해 보인다.



전통문화연수원에서 만난 장현식 선생의 고택을 둘러봤다.  
단순히 고택이라 생각하고 둘러봤는데, 설명을 통해 본래  
있었던 부분과 복원된 부분의 차이를 보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원하더라도 이전과 균형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미서기창을 보니, 조상들의 지혜에 깜짝 놀랐다.  
여닫이에 위로 올리는 문은 봤어도, 미닫이와 여닫이가  
동시에 되는 문은 처음으로 봤다.  
마치 마술쇼를 보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관람객으로 왔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을 산책자의  
눈으로 바라보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다.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면서 생활공간인데, 너무 무심하게  
지나쳐왔던 것 같다. 내가 살고 있는 전주를 어떤 눈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나야 할지 고민할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장영권

동고산과 남고산 사이로 흐르는 전주천이 바위에 부딪히며 방향이 바뀌는 곳에 자리 잡은 한벽당..!

종종 전주천을 산책하며 쉬어가던 곳을, 여렷이 함께 하고,  
선생님의 설명을 곁들이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다만, 바로 옆에서 한벽교를 달리는 차량 소리가 주변의 평온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못내 아쉽다.



채은주

오목대에서 전주향교 쪽으로 내려오면서 쌍샘을 봤다  
전주에 살면서, 전주한옥마을을 몇 번이나 왔는데 그저 스쳐지나갔던 곳인데  
전주산책자 탐방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다  
앞으로 산책을 하면서 주변을 좀 더 관심있게 바라보고 알아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오늘도 여행중.. (2025.9.24.)

문재림

하루아침에 이 가을이 확 줄어 양상한 겨울로 들어설까봐  
즐기며 아끼고 싶은 마음

오늘은 걸으며 여행을 하는 날  
이제 낯이 익어 가는 이들과 수다를 나누기도  
카페에 앉아 달달한 음료를 마시기도,  
뭘 하든 참 좋은 계절에  
오늘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기



다카야마 미유키

한벽당에서 보는 풍경은 예로부터 많은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던 장소로 유명하다.

전주에서 오래 살아왔지만 한옥마을 거리만 둘러보았을 뿐,

이렇게 전통적인 볼거리가 많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전주의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너무나 마음 편하게 역사시설을 구경할 수 있었다.

왜 다른 지역 사람들과 많은 외국인이 한옥마을을 찾아오는지 알게 되었고,

전주에 살고있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또 풍남제의 보존 등 부족한 부분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참고해 앞으로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최명표 선생님과  
**두번째 탐방**

2025. 10. 1. 수요일 13:30~16:30

문학산책자가 되어 전주 대표 문학 유적지를 거닐며 문학적 사유  
향교-양사재-학인당-고하문학관-초록바위-다가공원



전주 텁방-2025.10.1.

고광휘

향교와 한옥마을이 전주천만 건너면 아주 가까이 불어 있는 교육대학을 다녔으면서도 겉으로만 왔다갔다 산책했을 뿐, 전문가에게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으므로 역사적인 의미나 이곳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건들을 잘 알지 못했다. 다행히 최명표 교수님이 이곳과 관련하여 과거의 수많은 연관된 사람들과 얹히고 설친 관계나 에피소드를 많이 들려주어 꽤나 상식이 넓어지게 되었다.  
'어떻게 저렇게 이리저리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사건들을 생생히 잘도 묘사할까?'라고 감탄하며 들었다.

특히, 교육대학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전주사범 출신들이 문학적인 면에서 탁월함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기념관을 교육대학부지에 마련하면 한옥마을과 연계해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에서의 문학적인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공감이 갔다.

시간을 만들어 최교수님과 만나 자세히 더 질문하고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진북생활문화 센터에서 두 분이나 나와서 탐방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돋는 모습에 감사한다.  
프로그램 개설도 고마운데 우리 배우는 일행들이 편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챙기는 모습이 멋있었다.



### 장영권

고하문학관은 처음 방문이다.

고하 최승범 선생님이 기증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하니 탐방 수업이 한층 즐거움을 더한다.



전주 그리고 전북을 기반으로 문학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분들의 자료를 살피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 문재림

오늘은 추억 여행

그리운 시간들이 담겨있는 장소를 찾아  
교수님과 함께 한 산책자들 덕분에  
전주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허정주 선생님과  
**세번째 탐방**

2025. 10. 29. 수요일 13:30~16:30

도시산책자의 시선으로 전주의 전통문화 공간을 탐방하며 전주의 과거와 현재 종합적 통찰

충경사-불정사-남고산성-남고사-만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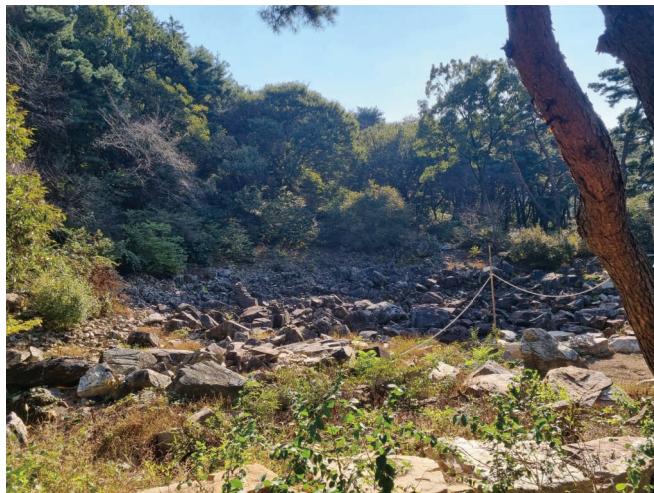
### 황은옥

10월 산책길은 충경사에서 시작해서 불정사, 남고사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그동안은 스쳐 지나가기에 바빴던 곳이라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내게는 큰 의미였다.

충경사는 충경공 이정란 장군의 사당이다. 예전에는 관통로라고 했던 곳을 지금은 충경로라고 명칭을 변경된 것을 보면, 충경공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분인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충경공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무렵에 관직에 물러나 있는 상태였지만,  
전주에서 의병 700여명을 모집하여 전주성 4대문을 수비하고  
남고산성과 만경대 등에 복병을 배치하여  
침입해오는 왜군을 막았다고 한다.  
정유재란 때는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서 순조 7년에 충경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 애국지사를 기리는 충경사가 세월의 흔적으로  
낡고 일부는 훼손이 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불정사는 남고사에 오르는 왼쪽 길로 내려갔다.  
교수님이 불정사 스님과 차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해서  
별 생각없이 갔는데,  
모신 부처님들이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앞으로 보물 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했다.



삼성당과 유사한 삼현루를 지나 오르니, 천단이 보였다.  
예전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둥글게 파인 곳에  
바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늘어져 있었다.  
천단에서 내려다 보니, 전주 시가지가 아름답게 펼쳐졌다.



주지스님이 내어주신 차와 간식을 먹으며 스님이 들려준 불정사 이야기를 들었다.  
절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차를 마시면서 여유를 주고자 차담을 할 수 있는 선신유를 만들었고,  
죽을 때 가져갈 두 가지가 선행과 수행이라는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고사를 가는 길은 엄청 경사가 심한 길이라 오를 때도 힘들었지만, 내려올 때는 더 힘이 들었다. 어렵게 도착한 전각 안에 들어있는 비석은 남고진 사적비인데, 남고산성의 축성경위와 남고진 설치에 관한 기록으로 창암 이삼만이 썼다고 한다. 창암 이삼만은 글씨를 잘 쓰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벼루를 3개나 구멍을 내었으며, 병 중에도 천자나 되는 글을 썼다고 한다. 남고산성은 전주 남쪽에 있는 고덕산과 천경대, 만경대, 억경대 봉우리를 둘러서 쌓은 산성으로. 후백제 견훤이 도성인 전주의 방어를 위해 쌓았다고 하여 견훤성, 고덕산성으로도 불리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은 임진왜란 때 왜군을 막기 위해 쌓은 것으로, 조선 순조 13년에 고쳐 쌓으면서 남고산성이라 불렸다고 한다. 남고사 주변으로는 천경대, 만경대, 역경대 삼봉이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해질녘 들려오는 남고사의 저녁 종소리는 매우 아름다워 예로부터 남고모종(南固暮鐘)이라고 칭하며 전주팔경의 하나로 꼽는다고 하는데, 듣지는 못했다. 절 아래쪽으로는 아기자기한 마을들이 눈에 들어왔다. 산책자가 되어 전주를 직접 돌아보니, 전주에 살면서도 알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산책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천년의 세월을 각인한 전주의 남쪽 사찰  
서쪽에 물고지 않고 하늘이 광물 숨겨 놓은 보광(寶光)  
여라를 보는 길고 구도(求道)의 교행 이기며  
산사 미달길 오르는 발걸음마다 숨이 터까지 차오고  
스님의 사시를 통해 삼중문이 미소를 지어 반기며  
호법당(好法堂)이 바로 앞에.

검령의 후백제 세 험난 남고성상에 퍼팽하도  
포군의 우국시가 만대대 암자에 서리도  
친구대 역경대의 경수가 아득히 빼나도  
남고모(南高磨)의 푸석 풍 소리면 못하도,

인보(恩보)의 세월속에 묻어나는  
스님의 창송 자세에 떠한 폭부 소리에  
산성 범파(梵父)의 어촌은 범파종선에 올라  
국학경로로 인보(印保)하니 자장보상이  
설비하여 합주으로 조단하라.

대웅전 차경(華鏡)은 중경의 세상을 살펴보고  
승연(勝연) 삼불이는 부처님 시중(示衆) 한족마을로  
다니 원는지 고민해 날中枢한 차고 있구나.

여래(如來)의 세남침과 시중(施餽)의 대사이  
함께 하는 이 좋은 모양(道場)에 미물리  
사물을 두고 양중한(忙中閑)을 즐기면  
부처가 바로 앉으니 여기가 바로!  
수미산(須彌山) 남고사(南高寺)라네.

단화( 단화)

## 다카야마 미유키

10월 마지막 주 좋은 날씨에 마지막 탐방 수업을 가졌다.

불정사, 남고산성, 남고사 전망대까지 평소 찾아보기 힘든 장소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오래전부터 전주를 지키기 위한 동서남북의 절 중 남고사를 찾게 되었고 그 중 하늘과 땅,

그리고 전주 풍경을 한자리에 볼 수 있었던 자리가 너무 인상깊었다.

불정사 스님과의 차담 시간은 새로운 사찰의 역할을 해나가고 싶다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간이 지나간지도 몰랐다.

만경대까지 가서 직접 보는 풍경은 잠시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계속 보고 있고 싶은 것이었다.

한국에 온 지 25년쯤 되었다.

이제는 일본에서 지난 날보다 한국 전주에서 지난 기간이 더 많아졌다.

전주의 역사 문화를 배우고 탐방을 하면서 전주에 살고 있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전주의 문화적 시설, 환경 등을 지키면서

또 전주다운 길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 명이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여러 면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나의 도시, 전주를 산책하며

- 참여자 수강후기 -



[ 전주 오목대 ]

채은주

전주산책자 강의를 듣고 마주한 전주의 전통 건물  
오목대의 멋이 새롭게 다가온 7월의 산책길



[ 모릉지도서관 ]

장영권

별다른 생각 없이 길을 걸었던 것 같다.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겠다.



[추천대]

자주 산책을 가는 추천대,  
주변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껴본다.



[강의시간에 그려본 수서와 연화수서]

[ 전북대학교의 한옥건축물 ] - 채은주



[정문]



[심천학당]



[법학전문대학원]



[문회루]



[현혈의 집]



[느티나무 카페]



[ 삼성문화회관앞 정자 ]



[ 건지정 ]



[ 청운정 ]

전주에서 다양한 한옥건축물을 볼 수 있다는 전북대학교 산책.  
한옥건축물이 이렇게 많았었나, 무심코 지나쳤던 건물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전주 산책자에서 마주한 첫 시간 - 황은옥

생활문화센터에 전주 산책자를 신청한 후 첫 강의를 들으면서 산책을 산보로 착각해서 신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유 있는 시간에 부담 없이, 산책하듯 편하게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고자 신청한 프로그램이었지만, 길 위의 인문학에서 주관하는 것을 알고 그 무게가 상당해서 당황스럽기도 했다.

내 당황스러움과는 달리 그 무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주에 대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너무 쉽게 알고자 했던 자신에 대해 부끄럼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고 강의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첫 강의에서는 산책에 대한 의미를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흩어질 산에 채찍 책이 합한 산책은 공간성, 자율성, 회귀성, 무목적성을 가지며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고 한다.

산책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 우리에게 익숙한 프랑스 문인 샤를 보들레르가 언급한 말이었다.

1963년, 보들레르가 <르 피가로>에 기고한 글에서 한가로이 도시를 걷는 사람들을 가리켜 'Flâneur(플라노르)', 즉 '산책자'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플라노르'는 정해진 방향이나 목적 없이 천천히 거닌다'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flâne(플라네)'에서 파생한 말인데, 이 시기 여러 철학자, 문학가, 예술가들이 스스로 산책자가 되어 도시를 걷는 것과 사유하는 것 사이에서 실험했다고 한다.

도시의 산책자는 도시의 관찰자가 되어 집단적 과거의 기억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

전주 산책자는 전주의 관찰자가 되어 전주를 관찰하면서 전주의 집단적 과거의 기억을 찾는 것이다.

강의 중에서 전주 부성의 성벽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물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바는 일제에 의해 신작로를 만들려고 무너뜨렸다고 답했다.

그런데 전주 부성의 성벽 돌들이 일제가 전라도의 경제적 수탈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설한 전군 간 도로를 개설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전군 간 도로는 아름다운 벚꽃길로만 알았는데, 여기에도 아픈 식민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살고 있는 전주의 역사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산책자가 되어보려니, 언제부터 도시를 산책하기 시작했는지가 궁금해졌다  
우리나라에 산책자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인데,  
소설가 박태원이 『조선중앙일보』에 1934년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30회 연재한 중편소설에서 찾을 수 있다.  
작가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주인공이 하루 동안 경성을 돌아다니면서 우연히 보는 것과  
그에 따른 상념 및 사색으로 작품이 이루어진다. '산책자'로서의 주인공은 자신이 행하는 '고현학'으로서의 도시를 관찰하고  
그의 행적이 그대로 작품화하였다.

구보씨처럼 내가 산책하고 자주 산책하고 있는 내가 걷던 길과 나무, 건물을 자세히 그려 다른 사람 앞에서 설명하다 보니,  
나도 전주 산책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시간 과제로 받은 산책로 건축물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도시의 길 위에는 과거의 시간이 있고 지금 내가 가고 있고 언젠가는  
이 길도 역사로 남아 또 다른 산책자가 거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조금 더 잘 즐기게 된 전주 산책자 - 고광희

공직 퇴직 후 전주 산책을 할 때가 많아졌다.

직장생활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일하고, 집안일 보살피느라

산책이라고 하는 게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전주 천변을 거니는 게 대부분이었다.

마침 시간도 넉넉한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진북생활문화센터에서 전주 산책자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는 것을 알고 얼른 신청하게 되었다.

무엇이든 더 아는 만큼 더 즐기게 된다는 것을 실행할 기회였다.

좀 더 깊이 있고 세밀하게 전주를 탐구하고 그 지식이나 감정을 지인들에게 잘 소개 해줄 수 있다는 목적도 있었다.

허정주 강사에게서 전주의 전통 건축과 전주를 걷는 법을 들으며 '세상에 전주에 저런 곳도 있었나?'하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했고, 소리와 눈으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는 교수 기법도 매우 감명 깊었다.

최명표 강사님의 강의에서 과거에 학창시절에 시험을 앞두고 달달 외웠던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지식이  
'아, 저런 내용이었구나!'하며 이해하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과거의 사람들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못지않게 치열하게 활동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이가 많아지면 당연히 많이 알 것 같은데도,  
구체적으로 전문가에게 듣고 배우지 않으면 피상적인 상식이나 편견으로 남을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러한 배움에서 느끼곤 한다.  
진북생활문화센터의 사려 깊은 프로그램 개설과, 이곳에 가까이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윤석현

인문학 항해를 마치고 조금 전 닷을 내렸습니다.

전주산책자와 함께한 전주 산책은 한벽루, 향교, 경기전 그리고 전라감영 등 많은 명소의  
옛 정취를 떠올리고 선조들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개월간 함께한 인문학 여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과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 진북생활문화센터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미란

전북지역의 항일작가들 외 근현대사 작가들에 대해 강의를 들으며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좋았다.

전북지역 출신의 독립군, 항일작가, 문학인들을 이야기할 때 유명인들과의 인연을 같이 설명해주시니  
이야기에 더 흥미를 느낄수 있었다.

우리 지역 출신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빠르게 곳곳에 세워놓음으로써  
전북의 위상을 올려보자는 강사님의 말씀에 동감한다.

## 신진철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는 일이 쉽지 않다. 나이 들어갈수록 더 어렵다.

전주에서 몇십 년째 살아가면서도 신발 벗고 한벽당에 올라 보기가 처음인 사람도 있었다.

자동차로 기린대로를 지나치며 늘 스쳐보던 곳이었다는데.

마음 두고 살지 않으면 기억에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명륜당 앞마당 은행나무 그늘에서 가을 오후가 친천히 이울어갔다.

느릿한 발걸음들이 한옥마을 뒷골목으로 흘러가며 새삼스러운 발견에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 황은옥

전주 산책자 강의를 통해 시를 만났다.

시를 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했지만,  
좋은 시들은 작은 파장이 되어 마음에 퍼져나갔다.

첫 번째 시는 제목이 '자술(自述)'이다.

자술은 스스로 고백한다는 뜻으로 뉘두리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했는데,  
글이 너무도 고와서 담아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시인의 이름은 이옥봉, 옥천군수의 서녀로 선조 때 승지를 지낸 조원의 소실이었다.

자술(自述) - 이옥봉

요사이] 안부를 물나니 어떻게 지내시나요?

달빛이 드는 사창으로 소첩의 한이 쌓입니다.

만약 꿈속이라도 소첩의 넋이 자취를 남길 수 있다면  
님의 문 앞에 난 돌길의 반이 모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임을 향한 그리운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임의 문 앞을 마음으로나마 얼마나 들락거렸으면 돌길의 반이 모래가 되었을 것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마음에 울컥해진다.  
시 한 줄로 먼 훗날의 사람을 이렇게 먹먹하게 만든 이옥봉은 정말 기억해 두고 싶고 자술은 가끔은 꺼내서 읽고 싶다.

두 번째로 만난 시는 '여승(女僧)'이다.

시인은 백석인데, 김영한이라는 대원각 주인이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방송으로 들은 적이 있다.

이번에 백석의 시를 직접 읽어보니, 김영한이 백석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시가 한 편의 수필처럼 느껴진다.

여승(女僧) - 백석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낫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려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접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밥같이 차게 울었다.

설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평도 설계 울은 술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이 시는 백석이 일제 강점기에 비극적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가난 때문에 가족을 잃고 여승이 되기까지의 일생을 서사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

여인의 남편은 가난 때문에 일거리를 찾아 집을 떠난다. 몇 해를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여인은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을 찾으러 집을 나서게 된다.

어느 날, 금광까지 찾아온 여인에게서 '나'는 옥수수를 사게 된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십 년이 되는 해에 어린 딸은 죽게 되고, 여인은 머리를 깎고 한 많은 속세를 떠나 여승이 된다.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절절한 아픔이 느껴져 백석을 찾아보니,

소월과 만해, 지용이 다져놓은 현대 시의 기틀 위에서 새로운 시의 문법을 세워

한국 시의 영역을 넓히는데 이바지한 시인이라고 했다.

평안 방언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언어들을 시어로 끌어들이고 고어와 토착어를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시어의 영역을 넓히고 우리말의 영역을 확장한 사람이라고 한다.

백석 시인은 갔어도 시인이 남긴 시는 남아 그 시절의 아픔과 고통을 전주 산책자 위치에서 함께 느껴본다.

백석은 옥수수를 사면서 여인의 사연을 듣고, 그 여인의 삶을 버리고 결국 여승이 될 수밖에 없는 풍문을 들었으리라.

섬세한 마음의 소유자인 백성은 그 사연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여러 날을 지새우며 그 여인의 아픔을  
적고 지우고 또 적어보고 찢는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눈물이 말라버린 여승의 어깨도,

그 여승을 안쓰럽게 안타깝게 바라봤을 백석의 마음도 토닥여주고 싶은 시간이었다.

금강의 탈 - 김해강

고운 산

차마 잡을 이룰 수 없어

고운 탈

말없이 호울로 앉아

밤 자태가 맑으니

탈을 바라본다.

산 나그네 촐을도 밟아.

겨울처럼

탈을 베고 누우니

화안히 트이는 마음,

물소리 은하처럼

이 한 밤

창가에 더욱 맑다.

부처인 양 밤들어 보이.

눈을 뜨면

산 이마에 뚜렷한 얼굴,

눈을 감으면

물에 채어 부서지는 탈 소리

세 번째로 만난 시는 초대 전북 예총 회장인 김해강의 시 '금강의 달'이다.

시인의 글보다는 그 행적 문제로 여전히 다른 평가를 받는 시인의 시를 보면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행적과 문학적 업적을 분리해 생각할 할 수 있는지, 분리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다.

금강에서 달을 보면서 그리운 임을 떠올리는 시를 읽다 보니,

문득 달은 그리운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마술을 지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해강처럼 그리운 얼굴을 닮은 달을 바라보면서 말을 건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표지 그림\_참여자 신친철



## 강사진 참여 소감

### 허정주 전북대학교 연구원

- 2024~현재, 올댓해리티지연구소 대표
- 2024~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전문위원
- 2024 진북생활문화센터 「길 위의 인문학」 강사
- 2021~현재, 아주자동차대학교 초빙교수
- 2018~2019 장항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기획 및 강사

“ 「길 위의 인문학-전주산책자」 프로그램은 뜨거운 여름날부터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까지 두 계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강의 전반부는 랜드스케이프 측면에서, 후반부는 사운드 스케이프 측면에서 전주를 바라보는 시간을 전주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수업 중에는 여러 수강생들이 거침없는 표현, 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을 들으면서 저 또한 자극도 받았고 많은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인문학 강의는 서로 주고받는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의 나눔이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유의 시간을 갖는 인문학 강의가 많이 개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전북대 쌀삶문명 연구소 객원 연구원

- 2023 전북도청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강의
- 2024 함라전통문화센터 「함라 삼부자의 문화적 선택」 강의
- 2024 부안문화재단 「부안 민속의 미래」 강의

“『2025 전주산책자』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올여름은 참으로 무더웠다.

다지쳐가던 무렵이었다. 첫 주제가 뭐였더라...

맞아, “전주대사습과 소리꾼”이었다. 첫 강의를 하면서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수강생들이 이미 귀명창이란 걸. 이분들은 인문학적 기반을 갖춘 데다

전문강좌를 꽤 학습하는 학습자라는 것을, 단박에 느꼈다. 이크, 내 밑바닥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ㅎㅎ

부창부수(夫唱婦隨)라는 말이 있다. ‘남편이 노래하고 아내가 따라 부른다’는  
뜻으로, 합이 잘 맞는 부부를 이르는 말이다. 내가 잘 몰랐던 내용을 학습자들이  
지적해주고, 내 강의에 집중해주는, 딱, 부창부수였다. 이후로 이어진 강의는  
쌍방 소통의 장이었다. 내가 추가로 덧붙이지 못한 말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말을 보탰다. “전주부성 산책길” 탐방이 마지막 일정이었다.

탐방은 「진북생활문화센터」 관장을 위시한 스텝이 참여했다.

아니, 그들은 전날 이미 답사를 마치고 코스, 소요시간, 음료와 간식, 휴식공간  
등을 이미 설계해 놓았다. 현장을 가이드해야 할 나는 오히려 학습자의 일원이  
되었다. 그렇게 부창부수가 완성되었다.

최명표

한국지역문학회 회장

- 2024 광주문학관 자료 검수위원
- 2024 전북대학교 무주인문도서사업 「무주문학」 특강
- 2024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주최 「전북의 인물」 특강
- 2023 한국지역문학회 주최 학술세미나  
「그리움의 장소성—박태일의 지역문학론 연구 (4)」 발표
- 2021 국어문학회 국어문학으로 지역을 읽다' 학술세미나  
「문학작품으로 읽는 전북의 사회상」 기조 발표

“인문학은 사람들의 흔적을 쫓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소중하고, 언제나 ‘길 위의 인문학’입니다. 그러나 흔적을 확인할  
요량으로 ‘길 위’를 산책하노라면,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흔적 위에 또 흔적이 쌓이고, 덮이고,  
사라지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흔적을 찾아 나서는 까닭은 과거의  
흔적이 현재의 역사를 만들고 지금의 흔적이 미래의 산책 대상으로  
남아 ‘인문학’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산책자의 시선으로 전주천변을  
걸으면서 전북 문학의 성과물을 제출한 작가들이 오간 ‘길 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책 중 잠시 멈추고 눈을 감으면 작가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모습에서 ‘길 위의 인문학’이 나아갈 길을  
보았습니다.”



2025 길 위의 인문학 **전주산책자**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    행 | 진북생활문화센터

발행일 | 2025. 11.

발행처 | 진북생활문화센터

발행인 | 한천수

사무국 | 박진이 송지연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30

전    화 | 063-275-0186

홈페이지 | <http://www.jeonjuculture.or.kr/jinbuk>

본 자료집은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운영에 관한 기록과 보존을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